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 첫 회의 개최

- 외부전문가와 2026년 공단 혁신과제 성과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One-HRDK’ 기반의 전사적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경영혁신의 객관성과 실행력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은 7일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단은 AX(인공지능전환)·DX(디지털전환) 가속화, 산업대 전환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혁신 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내부 실행조직인 ‘HRDK 혁신추진단’이 혁신과제를 발굴, 이행하고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아우르는 ‘One-HRDK’으로 전사적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외부와 공단 내부에서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학계, 정부, 노동조합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외부위원의 객관적 시각과 내부위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점검 결과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격주 단위로 정례회의를 통해 대국민 체감 서비스 등 주요 혁신과제의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최종적으로 2026년 혁신과제의 성과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25년도 공단의 경영성과 분석·진단을 기반으로 점검체계를 마련해 공단 대표 혁신과제의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공단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혁신과제 이행을 기반으로 혁신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26년 공단 대표 혁신과제를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병훈 이사장은 “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가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전사적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성과관리부	책임자	부장	박세은 (052-714-8644)
		담당자	과장	김예솔 (052-714-8647)